

“우리 강점은 퍼포먼스와 에너지”

신인 걸그룹 케플러 미니 앨범 13만장 돌파 코로나로 데뷔 연기 “준비기간 늘었다 생각”

넷플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 999 : 소녀대전’ 톱9으로 구성된 신인 걸그룹 케플러가 3일 첫 미니음반으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냈다.

케플러는 지난 3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데뷔 쇼케이스에서 “앞으로 펼쳐갈 케플러의 세계관과 다채로운 모습을 담았다”며 “꿈을 펼쳐나갈 케플러의 시작이니 잘 봐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그룹명 케플러는 ‘꿈을 잡았다’는 의미의 ‘Kep’과 아홉 명의 소녀가 하나로 모여 최고가 되겠다는 뜻의 숫자 ‘9’를 결합해 만들었다.

멤버 히카루는 케플러만의 강점을 묻는 말에 “에너지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라며 “꿈을 깨치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퍼포먼스로 보여드리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케플러는 리더 최유진을 비롯해 한국인 6명, 일본인 히카루·마시로, 중국인 사오팅으로 구성된 다국적 그룹이다.

데뷔 음반 ‘퍼스트 임팩트’(FIRST IMPACT)에는 타이틀곡 ‘와다다’(WA DA DA)를 비롯해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커플링곡 ‘MVSK’,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인트로곡 ‘시 더 라이트’(See The Light) 등 총 6곡이 담겼다.

‘걸스플래닛 999 : 소녀대전’ 시그널송

‘0.0.0’, 파이널 미션곡 ‘샤인’(Shine),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정선으로 시청자의 호응을 얻은 발라드곡 ‘어너더 드림’(Another Dream)도 케플러 버전으로 수록됐다.

김재현은 “케플러의 세계관은 꿈과 팬들의 사랑을 원동력으로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앨범과 뮤직비디오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 또한 케플러의 중요한 장치이니 잘 봐달라”고 기대를 주문했다.

케플러는 데뷔 준비 도중 멤버 사오팅과 마시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마시로는 “오히려 데뷔를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했다”며 “많이 기다려 주신 만큼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발을 댄 케플러는 벌써 ‘대박’ 조짐이 보이며 순조로운 향해를 시작했다.

다. 그룹 팬덤의 ‘화력’을 가능하게 한 첫날 판매량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벌써 13만장을 넘겼다.

휴닝바히에는 “케플러의 모든 것은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데뷔부터 함께 해주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프로그램 중영 후에는 데뷔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인기에 대한 체감이 없었는데, 부담보다는 데뷔 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앞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앞서 데뷔한 선배님들처럼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김다연) /연합뉴스



신인 걸그룹 케플러 /웨이크원·스윙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업텐션 /티오피미디어 제공

업텐션, 미니앨범 ‘노벨라’ 발표

사랑의 시작·설렘·끝 소설처럼 풀어내

그룹 업텐션(UP10TION)이 지난 3일 오후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열 번째 미니 앨범 ‘노벨라’(Novella)를 발표했다.

멤버 규진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쇼케이스에서 “‘노벨라’는 소설이라는 뜻으로, 한 편의 소설처럼 이어지는 음악을 담았다. 업텐션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너에게 미쳤었다’와 ‘기브 러브’(Give Love), ‘판도라’(PANDORA), ‘설레(雪來)’, ‘새드 엔딩’(SAD ENDING) 등 총 6곡이 담겼다.

사오는 “사랑의 설렘, 감동,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까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우리만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려드리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선율은 “여섯 곡을 통해 사랑의 기승전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7년 차인데 새롭게 변화한 모습을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곡에도 변화를 줬다. 업텐션만의 ‘아련한 색사’를 보여드리려는 게 목표”라고 웃으며 말했다. /연합뉴스

배우 전도연이 전설의 킬러로 변신한 100%를 자랑하는 초A급 킬러이자 15살 딸의 교육이 어렵기만 한 싱글맘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주인공 김복순을 연기한다.

‘별한당:나쁜 놈들의 세상’, ‘김메이커’로 변 감독의 페르소나가 된 설경구가 김복순의 재능을 알아보고 청부살인업체 M.K의 대표 차민규 역을 맡았다.

전도연과 설경구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2001), ‘생일’(2019)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됐다. /연합뉴스

전도연 ‘길복순’서 킬러 연기

변성현 감독 신작...설경구와 호흡 맞춰

넷플릭스는 변성현 감독의 신작 ‘길복순’ 제작을 확정하고 전도연, 설경구 등을 캐스팅했다고 4일 밝혔다.

영화 ‘길복순’은 청부살인업체의 전설적인 킬러 김복순이 회사와 재계약 직전,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

전도연이 명확한 상황 판단으로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초A급 킬러이자 15살 딸의 교육이 어렵기만 한 싱글맘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주인공 김복순을 연기한다.

‘별한당:나쁜 놈들의 세상’, ‘김메이커’로 변 감독의 페르소나가 된 설경구가 김복순의 재능을 알아보고 청부살인업체 M.K의 대표 차민규 역을 맡았다.

전도연과 설경구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2001), ‘생일’(2019)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됐다. /연합뉴스

“악역 어려워...촬영 내내 체해”

송새벽, 영화 ‘특송’ 악질 경찰 역 “투병 중 박소담, 미안하다 연락와”

“영화가 15세 관람가인데, 제 딸이 아직 지금 9살이거든요. 나중에 커서 스크린 속 아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하하.”

오는 12일 개봉하는 액션 영화 ‘특송’에서 악랄한 경찰 경필을 연기한 배우 송새벽은 지난 3일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필은 300억 원이 든 은행 보안기를 손에 넣기 위해 어린 남자아이 서원(정현준 분)과 그를 돕는 ‘특급 드라이버’ 은하(박소담 분)를 쫓는 인물이다. 현직 경찰이지만, 조폭 못지않은 악독함으로 무장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이들을 추격한다.

송새벽은 “베테랑 경찰이자 약당 우두머리라는 양면성 있는 캐릭터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다”고 출연 배경을 밝혔다.

송새벽은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과하게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살인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차가운 인물로 경필 역을 소화했다. 경찰로서 동료에 대하는 모습이나 강패 두목으로서 조직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비슷하게 ‘관료적’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송새벽의 존재감을 알린 영화 ‘방자전’(2010)에서도 그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독특한 변화도를 선보여 호평받았다. 이후

‘도희야’(2014)에서는 딸에게 폭력을 일삼는 잔인한 의붓아버지로 변신했다.

이번에도 이중생활을 하는 경찰을 선택한 그가 천생 악역 배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은 이런 역할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송새벽은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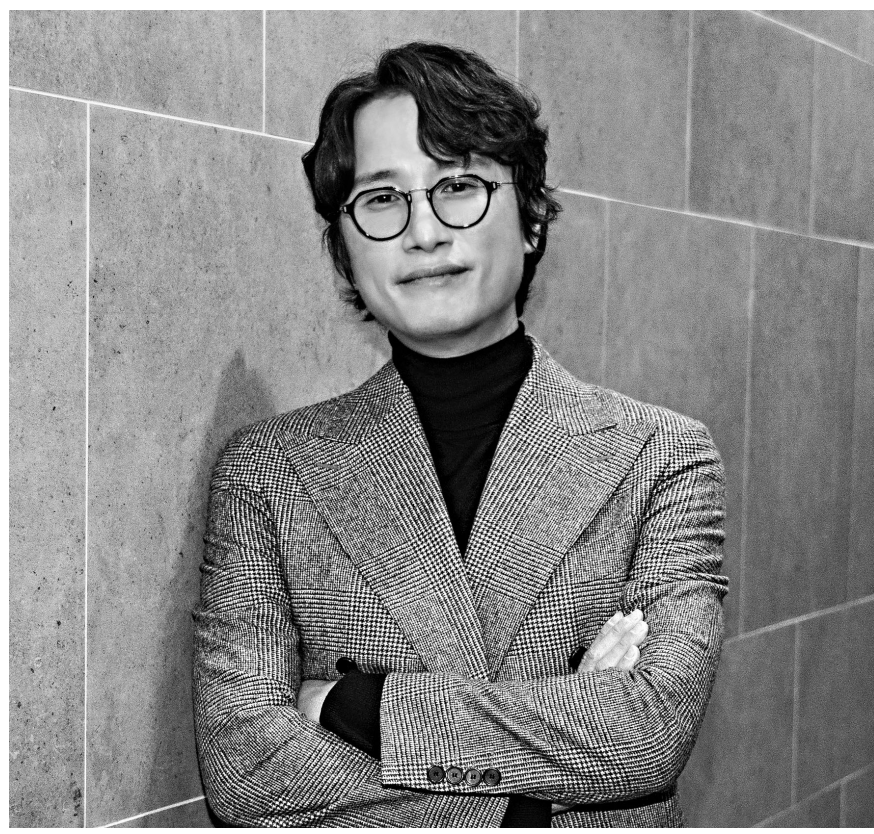
“‘도희야’ 때는 촬영 내내 체해서 손을 몇 번이나 댔는지 몰라요. ‘특송’을 촬영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나쁜 꿈도 꾸고 굉장히 날이 뻑뻑하게 서 있었어요. 악역을 연기했을 때 좀 더 못 헤어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 송새벽의 모습은 반듯하고 친근한 인상 그대로다. ‘컷’ 소리가 떨어지면 송새벽은 극에서 사생활단으로 쫓던 은하역의 박소담을 따뜻하게 껴안아 줬다고 한다.

송새벽은 “소담씨와는 굉장히 유쾌하게 촬영했다”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서로 거칠게 액션 장면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갑상샘 유두암 진단을 받아 수술한 박소담은 최근 열린 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문자로 배우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사회화 끝나자마자 같이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병원도 다녀왔고 몸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영화 ‘특송’ 주연 배우 송새벽 /NEW 제공

영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무척 궁금해하기에 ‘야 너무 좋다’고 답했죠(웃음).”

송새벽은 ‘특송’이 유사한 장르의 다른 영화와 비교해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영

화”라고 소개했다.

“굉장히 속도감 넘치고 기승전결이 뚜렷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관객분들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사와 아가씨’ 시청률 고공행진

3주 연속 순위 상승세...KBS 연기대상 6관왕도

배우 지현우에게 ‘KBS 연기대상’의 영예를 안겨준 KBS 2TV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가 회를 거듭하면서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일 CJ ENM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0~26일)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집계에서 ‘신사와 아가씨’는 종합 부문 7위, 드라마 부문 4위에 올랐다. 12월 둘째 주 종합 10위, 셋째 주 종합 9위에 이어 3주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신사와 아가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가씨’ 박단단(이세희 분)과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기업 총수 이영국(지현우)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5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

라마 ‘하나뿐인 내편’, ‘장미빛 연인들’ 등 인기작을 집필한 김사경 작가의 후속작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작품은 첫회에서 22.7%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상승세를 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시청률 35%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을 냈으며, ‘2021 KBS 연기대상’에서는 대상을 비롯해 작가상, 베스트커플상, 신인상 등 6관왕을 거머쥐며 ‘연모’와 함께 최다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12월 넷째 주에는 역사 왜곡 논란을 겪고 있는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가 지난주에 이어 콘텐츠영향력평가 지수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5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5일 (음력 12월 3일)

<p>子</p> <p>48년생 사랑한다던 용서하고 믿어주자. 60년생 따뜻한 사람만이 타인을 질책할 수 있다. 72년생 미운 놈에게 딱 하나 더 준다. 84년생 이별 수가 있다.</p>	<p>丑</p> <p>49년생 말은 해아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61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73년생 일단 나무터 살고 보자. 85년생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가 있겠다</p>	<p>寅</p> <p>50년생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62년생 동지와 협력하여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간다. 74년생 역발상이 필요하다. 86년생 감당하지 못할 일은 시작도 말라.</p>	<p>卯</p> <p>51년생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63년생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된다. 75년생 인생은 미지를 향한 여행이다. 87년생 준비된 자만이 찾아온 기회를 잡는다.</p>
<p>辰</p> <p>5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64년생 몸에 부상이 우려되니 조심하라. 76년생 동료의 배신이 우려된다. 88년생 참을 수 있다면 참는 것이 더 이롭다.</p>	<p>巳</p> <p>41년생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하라. 53년생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65년생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77년생 변화가 필요하다.</p>	<p>午</p> <p>42년생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54년생 최종 결과가 기대 이상이다. 66년생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78년생 하늘님의 보살핌이 있겠다.</p>	<p>未</p> <p>43년생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니 조심하라. 55년생 괜히 걱정되고 한숨이 나온다. 67년생 모든 집착을 버리고 용서하라. 79년생 재물 손실이 우려된다.</p>
<p>申</p> <p>44년생 후회할 일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라. 56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68년생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바꾼다. 80년생 참고 기다리면 길하다.</p>	<p>酉</p> <p>45년생 깎을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57년생 생각은 이제 그만, 실천이 필요하다. 69년생 동료의 질투를 경계하라. 81년생 가랑비에 도둑이 젖을 수 있다.</p>	<p>戌</p> <p>46년생 원한 살 일은 절대 하지 말라. 58년생 믿었던 자에게 발등을 찍힌다. 70년생 하나를 주면 둘을 얻는다. 82년생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아진다.</p>	<p>亥</p> <p>47년생 중용을 실천하면 허물이 없다. 59년생 대결이 아닌 타협을 선택하라. 71년생 친구의 꼬임에 빠져 일탈행위를 할 수 있다. 83년생 일찍 귀가하라.</p>